

人蔘養榮湯의 문헌고찰과 형상의학적 치료

이용태* · 윤덕영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방바이오연구센터, 1: 양천경희한의원

Study of Insamyangyung-tang in Hyungsang Medicine

Yong Tae Lee*, Duk Young Yoon¹

Department of Physiology ·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Yanchun Kyunghee Oriental Clinic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through studying of referring literature, of contents of the prescription and of clinical applications in Hyungsang Medicine. Insamyangyung-tang(人蔘養榮湯) was appeared first in Taepunghyemin-whajegugbang(太平惠民和劑局方) which was written by Jin and others at Song Dynasty. This prescription is applied to senility and long lasting weakness, little strength of spleen and lung(脾肺氣虛), and insufficiency of blood. The Insamyangyung-tang is composed of medical stuffs which Rhizoma Cnidii is taken out from Sipjiendaebotang and Pericarpium Citri Nobilis, Fructus Schizandrae, Radix Polygalae are added to it. This prescription is used in China up to the present. In Korea, according to Donguibogam, Rhizoma Cnidii and Poria are taken out from Sipjiendaebotang and Pericarpium Citri Nobilis, Fructus Schizandrae, Radix Polygalae are added to it, and Ramulus Cinnamomi is changed to Cortex Cinnamomi, and also Radix Ledebourielae is newly added to it. This is reorganized to fit for Korean physical conditions and to be useful for deficiency of blood, and also to be efficacious for coming and going of chillness and fever and running with sweat due to weakness of Liver. In the point of view of Hyungsang medicine, Insamyangyung-tang is applied to shapes and symptoms as follows : This prescription becomes more efficacious to women than to men. At the age of fifties when liver grows weak it effects a cure. It takes effect to the shape of going easily into the deficiency of blood, that is, to the Hyul Kwa with an oval face. It effects a cure on the man who has wrinkles on the bridge of the nose, who has marks of being choked up on the central area between two brows, or who has distinctive size of eyes and nose. It is efficacious against symptoms which are to be exhausted, to be weak, to lose flesh, to be coming and going of chillness and fever and running with sweat.

Key words : Insamyangyung-tang(人蔘養榮湯), Hyungsang medicine, Sipjiendaebo-tang(十全大補湯), Donguibogam, Hyul kwa(혈과)

서론

人蔘養榮湯은 宋代의 陳師文 등이 저술한 《太平惠民和劑局方》¹⁾에 처음 나오는 처방으로 오래된 虛勞와 虛損에 사용하며, 처방의 명칭은 養營湯 또는 養榮湯이라 하며, 꿀로丸을 만들어 人蔘養榮丸²⁾이라 하고, 白芍藥을 君藥으로한 十全大補湯의 加減方으로 十全大補湯에 川芎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한 처방인데 脾肺氣虛, 榮血不足의 증상을 치료한다. 처방의 명칭

‘養榮’에서 ‘養’은 기르다, 봉양하다, 補하다는 뜻이 있고, ‘榮’은 영화롭다, 번영하다는 뜻이 있는데, 榮은 水穀之精氣이며, 營衛의 뜻이 있으며, 血氣가 所在하는 곳을 가리키므로 人蔘養榮湯은 榮血의 不足을 養한다³⁾.

《東醫寶鑑》에 나오는 人蔘養榮湯은 《萬病回春》⁴⁾을 인용했으며, 《萬病回春》과 主治證을 비교하면 《東醫寶鑑》에서는 氣血不足과 寒熱自汗의 증상이 첨가되고, 처방 구성을 보면 《萬病回春》은 十全大補湯에 川芎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5/05/12 · 수정 : 2005/06/17 · 채택 : 2005/07/20

1) 陳師文 等 : 太平惠民和劑局方, 欽定四庫全書 9, pp.589-590.
2) 江克明 外 : 校正方劑大辭典, pp.44-45.
3) 신재용 : 方藥合編解說, p.42
4) 龔廷賢 : 萬病回春, p.186

志를 가한 처방이고, 《東醫寶鑑》은 十全大補湯에 川芎과 茯苓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하고,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防風을 새로 첨가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中國文獻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약물 구성이다. 《東醫寶鑑》에서 人蔘養榮湯이 사용된 조문(條)을 살펴보면 <氣門·短氣>, <耳門·勞聾>, <火門·潮熱>, <火門·辨陽虛陰虛二證>, <虛勞門·陰陽俱虛用藥>에 나오는데, 虛損이 되어 氣血이 不足하고 몸이 마르고 나른하며 숨이 짧고 잘 먹지 못하거나, 寒熱自汗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形象醫學 관점에서 人蔘養榮湯에 적용하는 形象과 症狀은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사용하며, 나이는 卅이 쇠해지는 시기인 50대, 얼굴이 상중하로 생긴 血科나 血色이 좋지 않을 때, 산근에 주름이 있거나, 코를 위주로 한 사람, 인당이 鬱해 있을 때, 症狀은 虛勞證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고 살이 마르고 寒熱往來, 自汗에 활용한다.

이에 저자는 人蔘養榮湯의 文獻考察과 方劑學的 考察을 통하여 方劑의 의의를 살피고, 形象醫學의 관점을 응용한 治驗例를 통하여 人蔘養榮湯의 形象과 症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론

1. 文獻考察

1) 中國文獻

(1) 宋代

① 《太平惠民和劑局方》 <卷五·治諸虛>에 人蔘養榮湯은 오래된 虛勞와 虛損으로 四肢의 뼈와 살이 모두 아프고, 호흡이 가쁘며, 기운이 없고, 움직이면 더욱 숨이 가빠지며, 아랫배가 당기고, 등과 허리가 심하게 아프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구멍과 입술이 마르며, 입맛이 없으며, 양기가 쇠약하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자꾸 누우려 하며, 오래된 者는 여러 해에 걸쳐서 되고, 어린 者는 백일에도 되는데, 점점 살이 빠지고, 五臟의 氣가竭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증상을 치료한다. 또 肺와 大腸이 모두 虛하여 기침하며 설사하고, 숨이 가쁘고 가래를 뱉는 증상을 치료한다.

人蔘養榮湯은 白芍藥을 君藥으로 한 十全大補湯에 川芎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한 처방으로 諸虛를 치료하는데, 《東醫寶鑑》과 비교해보면 主治證은 비슷하나 약물 구성에서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는 茯苓·桂心이 들어가 있고 《東醫寶鑑》은 茯苓이 빠지고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防風이 새로 첨가되어 있다.

② 《三因方》 <卷之十·雜勞證治>⁸⁾, <卷之十三·虛損證

治>에 나오는데, 처방의 명칭이 <卷之十·雜勞證治>에서는 養榮湯으로, <卷之十三·虛損證治>에서는 人蔘養榮湯으로 나온다. <虛損證治>에 나오는 人蔘養榮湯의 主治證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거의 비슷하고, <雜勞證治>에 나오는 養榮湯은 五疸를 치료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입맛이 답답하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약간 축고 열이 나고 숨이 차고 小便에 白濁이 나오는 虛勞의 病證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三因方》에서는 두개의 처방이 나오는데, <虛損證治>에 나오는 人蔘養榮湯은 약물구성이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같고, 용량만 약간 다르고, <雜勞證治>에 나오는 養榮湯은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甘草炙가 甘草로 되어있을 뿐 나머지는 같다.

宋代 이후 문헌에서 처방의 명칭을 두 가지로 혼용하는데, 이것의 원류가 《三因方》으로 생각된다.

(2) 金·元代

① 《世醫得效方》에는 <諸疽門·虛勞疽>¹⁰⁾, <咳嗽門·冷證>¹¹⁾, <虛損門>¹²⁾, <癆瘵門·虛證>¹³⁾에 나오는데 처방과 해설은 <卷第八·虛損門>에 養榮湯으로 나온다.

《世醫得效方》에는 《三因方》을 인용하여 처방의 명칭이 人蔘養榮湯이 아닌 養榮湯으로 되어있고, 虛勞疽·咳嗽·虛勞·癆瘵의 病證에 쓰였으며, 主治證과 처방의 약물구성은 《三因方》과 거의 같다.

② 《丹溪心法》은 <卷三·補損五十一>¹⁴⁾에 나오는데 人蔘養榮湯은 積勞虛損으로 인한 四肢倦怠, 肌肉消瘦, 面少顏色, 呼吸短氣, 飲食無味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丹溪心法》에 나오는 人蔘養榮湯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主治證을 간단히 정리하였고, 처방의 약물구성은 같고 용량만 약간 다르다.

(3) 明代

① 《醫學綱目》 <卷之二十一·脾胃部·黃疸>¹⁵⁾에 養榮湯으

人蔘 白朮 黃芪 當歸 熟地 白芍 茯苓 五味子 遠志 甘草 肉桂 陳皮 右剉散 每服四錢 薑三片 棗二枚 煎服。便精遺泄 加龍骨 一兩 咳嗽 加阿膠。

9) 上揭書, 卷之十三·虛損證治, p. 15

人蔘養榮湯 治積勞虛損 四肢沈滯 骨肉酸疼 吸吸少氣 行動喘咳 小便拘急 腰背強痛 心虛驚悸 咽乾唇燥 飲食無味 陰陽衰弱 悲憂慘戚 多臥少起 久者積年 急者百日 漸至瘦削 五臟氣竭 難以振復。又治肺與大腸俱虛 咳嗽下利 喘促少氣 嘔吐痰涎。

黃芪 人蔘 當歸 桂心 甘草炙 陳皮 白朮 各一兩 芍藥 三兩 熟地 五味 茯苓 各三分 遠志去心 炒五錢。咳嗽 加阿膠 三兩 右剉咀 每服四錢 加生薑大棗 煎七分。遺精 加龍骨 一兩。

10) 危亦林：世醫得效方, p. 110

11) 上揭書, p. 162

12) 上揭書, p. 259

養榮湯 治積勞虛損 四肢沈滯 骨肉酸疼 吸吸少氣 行動喘咳 小便拘急 腰背強痛 心虛驚悸 咽乾唇燥 飲食無味 陰陽衰弱 悲憂慘戚 久臥少氣 久者積年 急者百日 漸至瘦削 五臟氣竭 難以振復。

黃芪 當歸 桂心 甘草 橘皮 白朮 人蔘 各一兩 芍藥 三兩 熟地黃 五味子 茯苓 各三分 遠志去心 炒五錢。咳嗽 加阿膠 三兩 右剉散 每服三錢 生薑三片 棗二枚 煎 空心服。遺精夢泄 加龍骨 一兩 咳嗽 加阿膠 甚妙。

13) 上揭書, p. 307

14) 朱震亨：丹溪醫集, p. 340

人蔘養榮湯 治積勞虛損 四肢倦怠 肌肉消瘦 面少顏色 吸吸短氣 飲食無味。白芍藥 三兩 當歸 陳皮 黃芪 桂心 人蔘 白朮 甘草炙 各一兩 熟地黃 五味 茯苓 各七錢半 遠志 半兩。右以水煎 生薑三片 棗一個。遺精 加龍骨 咳嗽 加阿膠。

15) 樓英：醫學綱目 3卷, p. 78

養榮湯 治五疸 脚弱心怯 口淡耳嚮 微寒發熱 氣急 小便白濁 當作虛勞治之。

5) 許浚：對譯東醫寶鑑, p. 167, 580, 1112, 1115, 1176.

6) 上揭書, p. 1177

7) 陳師文等：太平惠民和劑局方, 欽定四庫全書 9, pp. 589-590.

人蔘養榮湯 治積勞虛損 四肢骨肉酸疼 吸吸少氣 行動喘咳 小腹拘急 腰背強痛 心虛驚悸 咽乾唇燥 飲食無味 陰陽衰弱 悲憂慘戚 多臥少起。久者積年 急者百日 漸至瘦削 五臟氣竭 難以振復。又治肺與大腸俱虛 咳嗽下利 喘促少氣 嘔吐痰涎。

白芍藥 三兩 當歸 陳皮 黃芪 桂心去粗皮 人蔘 白朮根 甘草炙 各一兩 熟地黃 五味子 茯苓 各七錢半 遠志炒去心 半兩。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薑一片 棗子二個 煎至七分 去渣溫服。便精遺泄 加龍骨一兩 咳嗽 加阿膠甚妙。

8) 陳無擇：三因方, 卷之十·雜勞證治, p. 22

養榮湯 治五疸 脚弱心怯 口淡耳嚮 微寒發熱 氣急 小便白濁 當作虛勞治之

로 나온다. 이것은 《三因方·雜勞證治》에 나오는 養榮湯을 인용하여 養榮湯은 五疸를 치료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입맛이 답답하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약간 춥고 열이 나고 숨이 차고 小便에 白濁이 나오는 虛勞의 병증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醫學綱目》에서는 처방의 명칭이 《三因方·雜勞證治》와 같이 養榮湯으로 나오고 主治證과 처방의 약물구성도 《三因方》과 거의 같다.

② 《醫學入門》 <通用古方詩括·雜病>¹⁶⁾에 人參養榮湯은 養榮湯¹⁷⁾이라고도 하며, 人參은 補氣하고, 養榮이라고 하는 것은 氣가 盛하면 血을 生하기 때문이다¹⁸⁾라고 하였다. 虛勞가 쌓여 虛損이 되어 四肢가 권태롭고 肌肉이 마르고 빠지며 얼굴색이 좋지 않고 短氣와 입맛이 없는 증상을 치료하고 遺精이 있을 때는 龍骨을 加하고, 咳嗽에는 阿膠·麥門冬을 加하고, 挾火는 知母·黃柏을 加하고, 人參養榮湯은 大補하는데 十全大補湯에서 川芎을 去하고 橘皮·遠志·五味子를 加한 것이라고 하였다.

《醫學入門》에 나온 人參養榮湯의 主治證은 《丹溪心法·補損》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약물구성은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大棗가 빠졌지만 나머지 처방의 구성과 용량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거의 같다.

③ 《萬病回春》 <卷上·發熱門>¹⁹⁾에 血이 虛해서 脈이 있고 潮熱이 있는 者에게 쓰는데, 虛勞가 쌓여서 虛損이 되어 四肢가 권태롭고 肌肉이 마르고 顏色이 좋지 않고 呼吸이 짧고 입맛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萬病回春》의 主治證은 《醫學入門》과 거의 비슷하고 약물구성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마찬가지로 茯苓과 桂心이 들어있다. 하지만 《東醫寶鑑》은 《萬病回春》을 인용하였는데 主治證은 비슷하지만 약물구성에서 《東醫寶鑑》은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새로 첨가했다.

④ 《壽世保元》 <丁集四卷·發熱>²⁰⁾에 男子가 血이 虛하고 脈이 있으며, 潮熱이 있을 때 人參養榮湯을 쓰고, 虛勞가 쌓여 四肢가 권태롭고 肌肉이 마르고 顏色이 좋지 않고 短氣와 입맛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壽世保元》의 主治證과 약물 구성은 《萬病回春》과 같은데, <乙集二卷·四時感冒>²¹⁾에 나오는 人參養榮湯은 본 처방의 내용과 다르다.

⑤ 《景岳全書》 <卷之五十三·古方八陳·補陳>²²⁾, <卷之五十四·古方八陳·和陳>²³⁾, <卷之六十四·外科鈐古方>²⁴⁾에 나오는데 <古方八陳·補陳>과 <外科鈐古方>에는 人參養榮湯으로 나오고 <古方八陳·和陳>에는 養榮湯으로 나온다. 人參養榮湯은 脾肺가 虛하여 惡寒發熱과 四肢가 마르고 권태롭고, 먹는 양이 줄어들고, 설사를 하거나 입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自汗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또 瘡瘍으로 脾胃가 虛損되어서 나타나는 虛勞證과 大病 後에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古方八陳·和陳>에는 《三因方》을 인용하여 養榮湯으로 나오는데 五疸로 虛弱하여 다리가 軟하고 心悸, 口淡, 耳鳴, 寒熱, 氣急, 小便白濁을 치료하고 虛勞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景岳全書》에 나오는 人參養榮湯과 養榮湯의 약물구성 차이는 養榮湯에서 熟地黃이 生地黃으로 바뀌고, 나머지 약물은 같고, 용량은 조금 다르다.

⑥ 《醫宗必讀》 <卷之六·虛勞門>²⁵⁾에 脾肺가 虛하여 發熱惡寒, 倦怠泄瀉 등을 치료하고 虛症에는 脈에 상관없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醫宗必讀》의 主治證과 약물구성은 《景岳全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용량만 약간 다르다.

(4) 清代와 其他 醫書

① 《醫方集解》 <補養之劑>²⁶⁾, <理血之劑>²⁷⁾에 나오는데 脾肺의 氣가 虛하고 榮血이 不足해서 나타나는 驚悸, 健忘, 寢汗, 發熱과 입맛이 없어 먹는 양이 줄어들며, 몸이 피로하고, 살이 빠

黃芪 當歸 桂心 甘草炙 陳皮 白朮 人參 各一兩 白芍藥 三兩 熟地 五味子 茯苓 各三錢 遠志去心 半兩 右每服四錢 薑棗煎 空心服. 右法治虛寒黃疸. (無)

16) 李梴: 編註醫學入門, pp. 579-580.
人參養榮 則大補. 去芎 加橘連味熬 劫勞散 亦大補湯 去芎桂 加半味膠. 人參養榮湯. 白芍 三兩 當歸 人參 白朮 甘草 黃芪 肉桂 陳皮 各一兩 熟地 五味子 茯苓 各七錢 遠志 五錢 每三錢 姜煎 空心 溫服. 虛甚者 煉蜜爲丸 可以常服.
治積虛成損 四肢倦怠 肌肉消瘦 面少顏色 呼吸短氣 飲食無味. 如遺精加龍骨. 咳嗽 加阿膠麥門冬 挾火 加知母 黃柏.

17) 上揭書, p. 39 人參養榮湯 省名 養榮湯.

18) 上揭書, p. 41 人參養榮湯 人參補氣. 言養榮者 氣盛則生血也.

19) 興廷賢: 萬病回春, p. 186
血虛有汗潮熱者.
人參養榮湯 治積勞虛損 四肢倦怠 肌肉消瘦 面少顏色 呼吸氣短 飲食無味也.
人參去蘆 當歸 陳皮 黃芪蜜炙 桂心 白朮去蘆 甘草炙 一錢 白芍酒炒 二錢 熟地黃酒浸 茯苓去皮 五味子 各七分半 遠志去心炒 五分 右剉一劑 生薑三片 棗二枚 水二鐘 煎至一鐘 食遠服.

20) 興廷賢: 壽世保元, pp. 272-274.
一論男子血虛 有汗潮熱者 以人參養榮湯.
一論積勞虛損 四肢倦怠 肌肉消瘦 顏色枯槁 呼吸短氣 飲食無味也.
人參養榮湯 人參 當歸 陳皮 黃芪蜜炙 桂心 白朮去蘆 白芍酒炒 熟地黃 白茯苓 去皮 五味子 遠志去心 甘草炙 右剉 薑棗煎服.

21) 上揭書, p. 114
人參養榮湯 熟地黃 六分 白芍 七分 麥門冬 一錢 五味子 肉桂 黃柏酒炒 三分 遠志 四分 陳皮 三分 人參 四分 白朮 六分 白茯苓 四分 歸身酒洗 四分 川芎 四分 右剉一劑 水煎溫服.

22) 張介賓: 景岳全書, p. 1141
人參養榮湯 二一. 治脾肺俱虛 惡寒發熱 肢體瘦倦 食少作瀉 口乾心悸 自汗等證.
人參 黃芪 當歸 白朮 炙甘草 桂心 陳皮 各一錢 熟地 五味 茯苓 各七分 白芍 錢半 遠志 五分 加薑棗 水煎服. (局方)

23) 上揭書, p. 1219
養榮湯 三五四. 治五疸虛弱 脚軟心悸 口淡耳鳴 微發寒熱 氣急 小便白濁 當作虛勞治之.
人參 黃芪 白朮 當歸 甘草炙 桂心 陳皮 各一兩 白芍藥 三兩 生地黃 茯苓 各五錢 五味子 遠志 各三錢. 右咀 每服一兩 水一鐘半 薑三片 棗三枚 煎七分 食前服. (無擇)

24) 上揭書, p. 1515
人參養榮湯 三三七 方在補陳二十一. 治瘡瘍脾胃虧損 發熱惡寒 血氣俱虛 四肢倦怠 肌肉消瘦 面色痿黃 汲汲短氣 食少作瀉. 凡大病後 最宜用此.

25) 李中梓: 醫宗必讀, p. 350
人參養榮湯 治脾肺俱虛 發熱惡寒 倦怠泄瀉 種種虛症 勿論其脈 但用此湯. 白芍藥 一錢五分 人參 陳皮 黃芪蜜炙 桂心 當歸 白朮土炒 甘草炙 各一錢 熟地黃 五味子炒 茯苓 各八分 遠志肉 五分 水二鐘 薑三片 棗二枚 煎服.

26) 汪詡庵: 醫方集解, p. 33

27) 上揭書, pp. 151-152.
人參養榮湯 (養榮)
治脾肺氣虛 榮血不足 驚悸健忘 寢汗發熱 食少無味 身倦肌瘦 色枯氣短 毛髮脫落 小便赤澀. 亦治發汗過多 身振脈搖 筋傷肉調.
人參 白朮 黃芪蜜炙 甘草炙 陳皮 桂心 當歸酒拌 一錢 熟地黃 五味子炒 茯苓 七分 遠志 五分 白芍 錢半 加薑棗煎.
此手少陰手足太陰氣血藥也. 熟地歸芍養血之品 參苓芍芎甘草陳皮 補氣之品 血不足而補其氣 此陽生則陰長之義. 且參苓五味 所以補肺 甘陳芍朮 所以健脾 歸芍所以養肝 熟地所以滋腎 遠志能通腎氣上達於心 桂心能導諸藥入營生血 五臟交養互益 故能統治諸病 而其要則歸於養榮也.

지며, 얼굴색이 좋지 않고, 숨이 차고, 毛髮脫落, 小便赤澀을 치료하고, 또 땀을 과다하게 흘리면 몸이 떨리고 脈이 요동을 치고 근육이 움찔거리는 증상을 치료하고, 人蔘養榮湯은 補養하고 養血하는 처방이라고 하였다. 《醫方集解》는 脾肺가 모두 虛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한 《景岳全書》의 내용을 인용하고, 榮血不足을 첨가하여 虛勞의 증상을 좀 더 세분화했고, 처방의 약물구성과 용량은 《景岳全書》와 같다.

② 《古今名醫方論》²⁸⁾ <卷一>에 人蔘養榮湯은 脾肺가 虛하여 發熱惡寒, 四肢가 마르고 몸이 권태롭고, 먹는 양이 줄어들고, 설사를 하는 증상을 치료하고, 氣血이 虛해서 나타나는 病症에는 脈에 상관없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景岳全書》의 내용과 비슷하다. 또 처방의 약물구성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같고 용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明代의 柯韻伯의 註釋을 인용하여 十全大補湯에 行血하는 川芎을 去하고 行氣를 시키는 陳皮, 安神定志하는 遠志, 收斂神明하는 五味子를 加한다고 하였다.

③ 《校正方劑大辭典》²⁹⁾에 人蔘養榮湯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 나오는 처방이라고 하였으며 《太平惠民和劑局方》의 主治證과 처방구성, 용량을 인용하였다. 또 人蔘養榮湯은 十全大補湯에 加減한 것인데 명칭을 養營湯 또는 養榮湯이라고 하며 꿀로 丸을 만들어 人蔘養榮丸이라 한다고 하였다.

④ 《中醫基礎理論叢書·方劑學》 <第八章·補益劑·補血>³⁰⁾에 八珍湯의 加味方으로 人蔘養榮湯이 나오는데 《太平惠民和劑局方》을 인용하여 益氣補血, 養心安神하는 작용을 하고 主治證은 勞積虛損, 呼吸少氣, 行動喘息, 心虛驚悸, 咽乾唇燥이다. 처방의 약물구성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같다.

⑤ 《方劑學》 <第三節·氣血雙補>³¹⁾에 人蔘養榮湯이 나오

는데 《三因方》을 인용하여 益氣補血하고 養心安神하여 心脾氣血兩虛의 증상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처방의 약물구성은 《三因方》과 같다.

2) 韓國文獻

(1) 東醫寶鑑 以前

① 《醫方類聚》 <卷之六十三·熱·升陽滋陰之劑>³²⁾에 人蔘養榮湯은 久病으로 虛損이 되어 입이 마르고, 먹는 양이 줄어들며, 기침과 설사가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十全大補湯에서 川芎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해서 만든 처방으로 手足太陰經으로 들어가는 氣血의 藥이라고 했다. 《醫方類聚》의 主治證과 약물 구성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비슷하다.

② 《醫林撮要》 <卷五·怔忡驚悸健忘門>³³⁾에 《世醫得效方·虛損門》을 인용하여 人蔘養榮湯은 오래된 虛勞와 虛損으로 心이 虛하여 가슴이 두근거리며 五臟의 氣가 竭하고, 肺와 大腸이 虛하여 설사와 숨이 가쁘고 가래를 뱉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약물구성이나 용량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거의 비슷하다.

(2) 東醫寶鑑

《東醫寶鑑》에서 人蔘養榮湯은 <氣門·短氣>³⁴⁾, <耳門·勞聾>³⁵⁾, <火門·潮熱>³⁶⁾, <火門·辨陽虛陰虛二證>³⁷⁾, <虛勞門·陰陽俱虛用藥>³⁸⁾에 나오는데, 虛損이 되어 氣血이 不足하고 몸이 마르고 나른하며 숨이 짧고 잘 먹지 못하거나 寒熱自汗을 치료한다³⁹⁾고 하였다.

《東醫寶鑑》의 人蔘養榮湯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李飛 主編：方劑學, pp. 868-873.

人蔘養榮湯(養榮湯)

組成：黃芪 當歸 桂心 甘草炙 橘皮 白朮 人蔘 各一兩(各 30g) 白芍藥 三兩(90g) 熟地黃 五味子 茯苓 三分(22g) 遠志去心炒 半兩(15g) 加生薑三片 大棗二枚.

功效：益氣補血 養心安神

主治：心脾氣血兩虛症. 倦怠無力 食少無味 驚悸健忘 夜寐不安 虛熱自汗 咽乾唇燥 形體消瘦 皮膚乾枯 咳嗽氣短 動則喘甚 或瘡瘍潰後 氣血不足 寒熱不退 瘡口久不收斂.

32) 金禮蒙 等：校正醫方類聚 3권, p. 476

人蔘養榮湯 治久病虛損 口乾食少 咳而下利 心驚悸 熱而自汗 前方(十全大補湯)減芎 加陳皮 五味 遠志 入薑棗煎服. 按此手足太陰藥 氣血之劑也.

33) 양예수：醫林撮要, p. 249

人蔘養榮湯 治積勞虛損 心虛驚悸 五臟氣竭 及肺大腸虛 下利喘促 嘔吐痰涎.

白芍藥 三兩 當歸 陳皮 黃芪 桂心 人蔘 白朮煨 甘草炙 各一兩 熟地黃 五味子 白茯苓 各七錢半 遠志 五錢 右每服五錢 水一盞半 薑三片 棗一枚 煎至七分 溫服. <得效·虛門>

34) 許浚：對譯東醫寶鑑, p. 167

入門曰 氣散則中虛 倦怠無力 短氣不足以息 宜調中益氣湯 人蔘養榮湯.

35) 上揭書, p. 580

經曰 精脫者 耳聾. 其候頰顏色黑 耳輪焦枯 受塵垢者 是也. 因房勞脫精者 人蔘養榮湯加知母黃柏並鹽水炒 煎服. 或補腎脂丸 益腎散. <入門>

36) 上揭書, p. 1112 血虛有汗潮熱 宜人蔘養榮湯.

37) 上揭書, p. 1115

氣血俱虛熱 升陽 滋陰兼用 十全大補湯 人蔘養榮湯 加知母 黃柏. <入門>

38) 上揭書, p. 1176

陰陽俱虛 謂氣血皆不足也. 宜用雙和湯 八物湯 十全大補湯 加味十全大補湯 黃芪十補湯 固真飲子 人蔘養榮湯…….

39) 上揭書, p. 1177

人蔘養榮湯 治虛勞成損 氣血不足 消瘦倦怠 氣短食少 或寒熱自汗. 白芍藥酒炒二錢 當歸 人蔘 白朮 黃芪蜜炒 肉桂 陳皮 甘草炙 各一錢 熟地黃 五味子 防風各七分半 遠志五分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 虛甚 則蜜丸常服 亦可. <回春>

28) 羅美：古今名醫方論, p. 8

人蔘養榮湯

治脾肺俱虛 發熱惡寒 肢體瘦倦 食少作瀉 等證. 若氣血虛而變見諸症 勿論其病其脈 但用此湯 諸症悉退.

人蔘 白朮 茯苓 甘草 黃芪 陳皮 當歸 熟地 白芍 五味子 桂心 遠志 右十二味 加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柯韻伯曰 古人治氣虛以四君 治血虛以四物 氣血俱虛者以八珍 更加黃芪 肉桂 名十全大補 宜乎萬舉萬當也. 而用之有不獲效者 蓋補氣而不用行氣之品 則氣虛之甚者 無氣以受其補 補血而仍用行血之物於其間 則血虛之甚者 更無血以流行. 故加陳皮以行氣 而補氣者 悉得效其用 去川芎行血之味 而補血者 因以奏其功. 此善治者 只一加一減 便能轉旋造化之機也. 然氣可召而至 血易虧難成 苟不有以求其血脈之主而養之 則營氣終歸不足 故倍人蔘爲君 而佐以遠志之苦 先入心以安神定志 使甘溫之品 始得化而爲血 以奉生身. 又心苦緩 必得五味子之酸以收斂神明 使營行脈中而流於四臟 名之曰養榮 不必仍十全之名 而收效如此者.

29) 江克明 外：校正方劑大辭典, pp. 44-45.

人蔘養榮湯(太平惠民和劑局方)

治積勞虛損 四肢沈滯 呼吸少氣 行動喘吸 小腹拘急 腰背強痛 心虛驚悸 咽乾唇燥 飲食無味 陰陽衰弱 多憂慘戚 多臥少起 久者積年 急者百日 漸至羸消 五臟氣竭 難可振復. 又治肺與大腸俱虛 咳嗽下利 喘乏少氣 嘔吐痰涎 等證.

方：白芍藥 三兩 當歸 陳皮 黃芪 桂心 人蔘 煨白朮 炙甘草 各一兩 熟地黃 五味子 茯苓 各七錢半 遠志炒去心 半兩 爲粗末 每服四錢 加生薑三片 大棗二枚 水煎服.

按：此由十全大補湯 加減而成. 又名養營湯 養榮湯. 若作蜜丸 名人蔘養榮丸.

30) 陳偉 外：中醫基礎理論叢書·方劑學, p. 213

人蔘養榮湯(太平惠民和劑局方)

組成：白芍藥 當歸 陳皮 黃芪 桂心 人蔘 白朮 甘草 熟地 五味子 茯苓 遠志 生薑 棗子.

功效：益氣補血 養心安神

主治：勞積虛損 呼吸少氣 行動喘息 心虛驚悸 咽乾唇燥 等證.

<氣門·短氣>에 <入門>에 이르기를 “氣가 흡어지면 속이 허하고 게을러지고 힘이 없으며 숨이 짧아 숨을 잘 쉴 수 없을 때는 調中益氣湯·人蔘養榮湯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耳門·勞聾>에 <內經>에 이르기를 “精이 부족하면 귀가 먹는다.”라고 하였다. 勞聾의 증상은 뺨이 검고 귓바퀴가 마르며 때가 끼는 것이다. 성생활로 精이 몹시 부족할 때는 人蔘養榮湯에 知母와 黃栢(함께 소금물에 축여 볶은 것)을 넣어 달여 먹거나, 補骨脂丸·益腎散을 쓴다. <入門>

<火門·潮熱>에 血이 虛하여 땀이 나고 潮熱이 있을 때는 人蔘養榮湯을 써야 한다.

<火門·辨陽虛陰虛二證>에 氣血이 모두 虛하여 熱이 날 때는 陽氣를 울리며 陰을 자양해야 하므로 十全大補湯이나 人蔘養榮湯에 知母·黃栢을 넣는다. <入門>

<虛勞門·陰陽俱虛用藥>에 陰陽이 모두 虛한 것은 氣血이 모두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니 雙和湯·八物湯·十全大補湯, ……., 人蔘養榮湯, ……., 등을 써야 한다. <諸方>

<東醫寶鑑>에 人蔘養榮湯의 主治證은 인용문헌인 <萬病回春>과 비슷하고 氣血不足과 寒熱自汗이 하나 더 첨가되었고, 약물 구성을 살펴보면, <萬病回春>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마찬가지로 茯苓과 桂心이 들어있는데, <東醫寶鑑>은 桂心を 肉桂로 바꾸고,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새로 첨가하였고 약물의 용량은 같다. 이것은 이전의 文獻과 비교하면 기존의 人蔘養榮湯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약물 구성이다.

(3) 東醫寶鑑 以後

① <濟衆新編> <卷二·虛勞>⁴⁰⁾에 나오는데 <東醫寶鑑>을 인용하였다. 主治證은 <東醫寶鑑>과 같고 약물구성은 肉桂의 異名인 官桂로 기재했고, 용량은 <東醫寶鑑>과 같다.

② <醫宗損益> <卷八·虛勞>⁴¹⁾에 나오는데 인용문헌을 <萬病回春>과 <東醫寶鑑>이라고 하였으나, 主治證과 처방내용, 약물용량을 살펴보면 肉桂의 異名인 官桂로 기재했을 뿐,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加한 <東醫寶鑑>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③ <方藥合編> <上統·補劑>⁴²⁾에 나오는데 <東醫寶鑑>의 내용을 인용하여 主治證과 처방 약물구성, 용량이 같다.

<소결>

이상의 문헌을 살펴보면 人蔘養榮湯은 宋代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처음 나오는 처방이다. 처방의 명칭은 人蔘養榮湯과 養榮湯, 人蔘養榮丸 등으로 사용되었다. <三因方>, <世醫得效方>, <醫學綱目>에서는 養榮湯으로 사용되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醫書에서는 人蔘養榮湯으로 나온다. 여러 문헌을 종합

해보면 人蔘養榮湯은 益氣補血, 養心安神하는데 脾肺의 氣가 虛하고 榮血이 부족하여 虛勞가 쌓여 虛損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인 驚悸健忘, 寢汗發熱, 食少無味, 身倦肌瘦, 色枯氣短, 毛髮脫落, 小便赤澀 등을 치료한다.

人蔘養榮湯의 약물 구성은 十全大補湯에 川芎을 去하고 陳皮·遠志·五味子を 加한 것으로, 중국문헌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을 기준으로 약물의 용량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처방의 약물구성은 같다. 하지만 <萬病回春>을 인용한 <東醫寶鑑>에서는 <萬病回春>의 처방 내용과는 다르게 桂心を 肉桂로 바꾸고,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새로 첨가하였다.

현대 중국의학 서적인 <校正方劑大辭典>, <中醫基礎理論叢書·方劑學>, <方劑學>에는 <太平惠民和劑局方>의 처방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학 서적에는 <東醫寶鑑> 以前시대인 <醫方類聚>나 <醫林撮要>는 약물구성이나 용량이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거의 비슷하지만, <東醫寶鑑>은 기존의 <太平惠民和劑局方>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약물구성으로 人蔘養榮湯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東醫寶鑑> 以後의 <濟衆新編>, <醫宗損益>, <方藥合編> 등의 한국 문헌들은 <東醫寶鑑>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것은 <東醫寶鑑>을 큰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학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중국 문헌의 처방들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을 기준으로 茯苓과 桂心이 들어있는 처방으로 전해졌고, <東醫寶鑑> 이후의 한국 문헌의 처방은 <東醫寶鑑>을 기준으로 桂心を 肉桂로 바꾸고,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새로 가미한 처방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3) 東醫寶鑑과 萬病回春의 比較

(1) <東醫寶鑑>과 <萬病回春>의 人蔘養榮湯 比較

<東醫寶鑑>에서 人蔘養榮湯의 인용문헌은 <萬病回春>이다. 실제로 <萬病回春>과 <東醫寶鑑>의 主治證과 처방구성, 약물순서를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萬病回春>과 <東醫寶鑑>의 主治證 比較

主治證	
萬病回春	治積勞虛損 四肢倦怠 肌肉消瘦 面少顏色 呼吸氣短 飲食無味
東醫寶鑑	治虛勞成損 氣血不足 消瘦倦怠 氣短食少 或寒熱自汗

표 2. <萬病回春>과 <東醫寶鑑>의 처방 구성 比較

東醫寶鑑	萬病回春
白芍藥	白芍藥酒炒2錢
當歸	當歸1錢
人蔘	人蔘1錢
白朮	白朮1錢
黃芪	黃芪蜜炒1錢
肉桂	肉桂1錢
陳皮	陳皮1錢
甘草	甘草灸1錢
熟地黃	熟地黃7.5分
五味子	五味子7.5分
防風	防風7.5分
遠志	遠志5分
桂心	桂心1錢
茯苓	茯苓去皮7.5分

40) 康命吉 : 濟衆新編, p. 44, 122.
人蔘養榮湯(寶鑑) 治虛勞成損 氣血不足 消瘦倦怠 氣短食少 或寒熱自汗. 白芍藥酒炒二錢 當歸 人蔘 白朮 黃芪蜜炒 官桂 陳皮 甘草灸 各一錢 熟地黃 五味子 防風 各七分五厘 遠志五分 薑三片 棗二枚.
41) 黃度淵 : 醫宗損益, p. 17, pp. 84-85.
人蔘養榮湯(回春) 治虛勞成損 氣血不足 消瘦倦怠 氣短食少 或寒熱自汗. 白芍藥酒炒二錢 當歸 人蔘 白朮 黃芪蜜炒 官桂 陳皮 甘草灸 各一錢 熟地黃 五味子 防風 各七分五厘 遠志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棗二枚. <寶鑑>
42) 黃度淵 : 對譯證脈方藥合編, p. 159
人蔘養榮湯(寶). 治勞損 氣血不足 氣短食少 寒熱自汗. 白芍藥酒炒二錢 當歸 人蔘 白朮 黃芪蜜炒 肉桂 陳皮 甘草灸 各一錢 熟地黃 五味子 防風 各七分半 遠志五分 薑三片 棗二枚.

표 3. 《萬病回春》과 《東醫寶鑑》의 처방 약물순서 비교

	처방 약물 순서
萬病回春	人蔘 當歸 陳皮 黃芪蜜炙 桂心 白朮 甘草炙 白芍酒炒 熟地黃 茯苓 五味子 遠志炒 生薑 棗
東醫寶鑑	白芍藥酒炒 當歸 人蔘 白朮 黃芪蜜炒 肉桂 陳皮 甘草灸 熟地黃 五味子 防風 遠志 薑 棗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主治證은 虛勞가 쌓여 虛損이 된 증상을 치료하는데 《東醫寶鑑》은 氣血不足과 寒熱自汗이 첨가 되고, 다른 내용은 《萬病回春》과 거의 같다. 약물 구성을 비교 하면 《萬病回春》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마찬가지로 茯苓과 桂心이 들어있는데, 《東醫寶鑑》은 桂心を 肉桂로 바꾸고, 한 가지 새로운 것은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文獻을 고찰해보면 기존의 人蔘養榮湯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약물 구성이다. 그리고 약물의 용량은 《萬病回春》과 같다.

처방의 약물순서를 비교하면 《萬病回春》과 《東醫寶鑑》에서 모두 白芍藥을 君藥으로 삼았으나, 《萬病回春》은 人蔘·當歸·陳皮·黃芪蜜炙·桂心·白朮·甘草炙·白芍酒炒·熟地黃·茯苓·五味子·遠志炒의 순서인데, 《東醫寶鑑》은 白芍藥을 君藥으로 삼아 맨 처음에 두고, 그 다음에 當歸·人蔘·白朮·黃芪蜜炒·肉桂·陳皮·甘草灸를 臣藥으로, 熟地黃·五味子·防風·遠志를 佐使藥으로 삼았다. 대부분의 기존 문헌에서와 같이 白芍藥을 君藥으로 삼은 것은 같지만 《東醫寶鑑》과 《萬病回春》의 약물 순서는 다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主治證은 《東醫寶鑑》에는 氣血不足과 寒熱自汗이 첨가되고, 다른 내용은 《萬病回春》과 거의 같다. 약물 구성에서는 《萬病回春》은 《太平惠民和劑局方》과 마찬가지로 茯苓과 桂心이 들어있는데, 《東醫寶鑑》은 桂心を 肉桂로 바꾸고, 한 가지 새로운 것은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文獻을 비교해보면 기존의 人蔘養榮湯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약물 구성이다.

(2) 새로운 약물구성인 人蔘養榮湯에 대한 考察

《東醫寶鑑》에서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加하고 桂心を 肉桂로 왜 바꾸었는지, 또 主治證에 첨가된 氣血不足, 寒熱自汗이 바뀐 약물과의 상관성은 무엇인지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考察해보고자 한다.

① 防風 : 防風은 發表散風濕藥으로 發表疏散之品⁴³⁾이고 發表散風, 勝濕止痛, 解癭定搐⁴⁴⁾ 하는데, 여러 가지의 風證을 치료하고 上焦의 風邪를 없애는 아주 좋은 약이다⁴⁵⁾. 《東醫寶鑑》 <津液門·自汗>에 玉屏風散⁴⁶⁾은 表가 虛하여 저질로 땀이 나는 것

을 치료하는데, 防風과 黃芪는 表의 氣를 든든하게 하고, 白朮은 속에 있는 濕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固表의 聖藥인 黃芪가 防風을 함께 쓰면 公력이 더욱 증대된다⁴⁷⁾고 하였다. 또 <雜病篇·風門·破傷風之治 同傷寒三法>⁴⁸⁾에 白朮防風湯은 破傷風에 땀을 과다하게 내거나 저질로 땀이 뗏지 않고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⁴⁹⁾고 하였고, 《東醫寶鑑》 <肝臟門·肝病治法>에 肝이 虛한 것을 치료하는 데는 四物湯이나 淸肝湯, 補肝丸을 쓴다⁵⁰⁾고 하였다. 補肝丸⁵¹⁾은 四物湯에 防風과 羌活을 넣어서 竅에 반죽하여 만든 丸藥으로 血이 虛하여 나타나는 肝虛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四物湯으로 血을 보충하고, 防風⁵²⁾과 羌活은 肝의 升發하는 기운을 도운다. 그러므로 積勞虛損과 榮血不足으로 肝이 虛할 때 사용하는 人蔘養榮湯에 새로 첨가된 防風의 작용은 氣血이 不足하고 虛勞가 쌓여 생긴 寒熱自汗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實表止汗하는 防風을 加하여 風邪를 없애고 止汗하는 작용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人蔘養榮湯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防風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東醫寶鑑》 <火門·潮熱>에 血이 虛하여 땀이 나고 潮熱이 있을 때 人蔘養榮湯을 사용한 것과 내용이 일치한다.

② 桂心과 茯苓 : 《東醫寶鑑》의 人蔘養榮湯을 기존의 문헌과 비교해보면 桂心和 茯苓이 빠졌는데, 《東醫寶鑑》 <暑門·暑病吐瀉>에 桂苓元⁵³⁾이라는 처방이 있다. 桂苓元은 여름철 冷濕에 傷하여 吐하고 泄瀉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처방 내용은 桂心和 赤茯苓이다. 桂心은 뱃속이 차갑고 아픈 것을 멈추며⁵⁴⁾, 茯苓⁵⁵⁾은 淡滲水濕藥으로 通利濕熱之品⁵⁷⁾이고 濕을 없애는 聖藥이고 입맛을 돋우고 구역을 멈추게 한다. 따라서 桂心으로 腹內冷痛을 치료하고 茯苓의 除濕하는 작용으로 嘔逆과 泄

43) 이상인 : 본초학, p. 222

44) 高學敏 : 中藥學, p. 44

防風

性味歸經 : 辛 甘 微溫. 歸膀胱 肝 脾經.

藥物功效 : 發表散風 勝濕止痛 解癭定搐

臨床應用 : 1) 外感表症 2) 風濕痺痛 3) 破傷風症

45)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1925

防風

性溫 味甘辛 無毒. 治三十六般風 痛利五藏關節 風頭眩 痛風 赤眼出淚

周身骨節疼痛 止盜汗 安神定志.

足陽明 足太陰之行經藥也 足太陽本經藥也. 治風通用 頭去身半以上風邪

邪 梢去身半以下風邪. <湯液>

除上焦風邪之仙藥也. <入門>

46) 上揭書, p. 261

玉屏風散 治表虛自汗. 白朮 二錢半 防風 黃芪 各一錢二分 右剉作一貼 水煎服. 防風 黃芪 實表氣 白朮 燥內濕 所以有效. <丹心>

47) 汪昂 : 本草綱要解析, p. 86

防風 同黃耆芍藥 又能實表 止汗. 合黃耆白朮 名玉屏風散 固表聖藥 黃耆得防風而功益大 取其相畏而相使也.

48)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988

破傷風 雖宜發汗 若自汗多 則宜用白朮湯 白朮防風湯.

49) 上揭書, p. 989

白朮防風湯

治破傷風 發汗過多 自汗不止 防風四錢 白朮 黃芪 各二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入門>

50) 上揭書, p. 306

肝虛 宜四物湯(方見血門) 淸肝湯 或補肝丸. 肝實 宜瀉青丸 洗肝散 當歸龍薈丸. <海藏>

51) 上揭書, p. 306

補肝丸 治肝虛. 卽四物湯 加防風 羌活 蜜丸也.

52) 서부일 외 : 임상 한방본초학, p. 140

防風 治風通用 昇發而能散.

53)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1081

桂苓元 治暑月 傷冷濕吐瀉. 桂心 赤茯苓 右等分爲末 煉蜜和勻 每一兩

作八丸 井水化下一丸. <局方>

54) 上揭書, p. 1964

桂心 治九種心痛 殺三虫 破血 止腹內冷痛 治一切風氣 補五勞七傷 通九竅 利關節 益精明目 煖腰膝 除風痺 破痰癰瘰癧 消痰血 續筋骨 生肌肉

下胞衣.

55) 上揭書, p. 1094

茯苓 淡能利竅 甘以助陽氣 除濕之聖藥也. 仙方有服餌之法 修製久服爲

佳. <本草>

56) 上揭書, p. 1967

茯苓 性平味甘無毒. 開胃 止嘔逆 善安心神 主肺痿痰壅 伐腎邪利小便

下水腫淋結 止消渴 療健忘.

57) 이상인 : 본초학, p. 282

瀉를 치료한다.

③ 茯苓: <東醫寶鑑>에 나와있는茯苓에 대한 설명을 찾아 보면, 四君子湯에서茯苓은氣를 내리고 濕氣를 빠져나가게 하고⁵⁸⁾, 人參膏에서는 下焦의 元氣를 補하고 腎의 火邪를 瀉하려면茯苓을 使藥으로 써야 한다⁵⁹⁾고 하였고, 二陳湯에도茯苓이 들어가는데茯苓은氣를 내리고 濕을 빠지게 한다⁶⁰⁾고 하였다. 또 六味地黃丸에는 소변이 흑 많거나 적거나, 벌겍거나 뿌연 데는茯苓을 君藥으로 삼았고⁶¹⁾,茯苓은 五淋을 치료하고 주로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을 잘 나오게 하고⁶²⁾, 半夏白朮天麻湯에서 澤瀉와茯苓은 小便을 잘 나가게 하여 濕을 없애고⁶³⁾, 小便이 잘 나가지 않는 데는茯苓과 澤瀉를 佐藥으로 해야 한다⁶⁴⁾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茯苓은 腎의 火邪를 瀉하여서氣를 내리고, 濕을 제거하여 小便을 잘 나가게 하는 작용을 한다. <氣門·短氣>에 東垣은 숨을 연달아 쉬지 못하고 오름이 잘 나오는 데는 四君子湯에茯苓을 빼고 黃芪를 더 넣어서 補한다⁶⁵⁾고 하였는데, 이때茯苓을 뺀 이유는 短氣의 증상에茯苓이氣를 내리기 때문이고, 黃芪를 더 넣은 것은氣를 補하는 작용을 증강시키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東醫寶鑑>의 人參養榮湯에서茯苓을 뺀 이유는 氣血이 부족하여 살이 빠지고 권태롭고, 숨이 짧아지고, 寒熱自汗의 虛勞 상태이므로, 만약 氣를 내리고 濕을 제거하면 氣血不足의 조건을 더욱 조장할 것이기 때문에茯苓을 去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추론된다.

④ 桂心과 肉桂: <東醫寶鑑> <湯液篇·木部>에 桂皮, 桂心, 肉桂, 桂枝, 柳桂가 나온다. 桂心⁶⁶⁾은 九種心痛을 치료하며

三虫을 죽인다. 또 瘀血을 해치고 背脊이 차고 아픈 것을 멈추며 모든 風氣를 없애고, 肉桂⁶⁷⁾는 腎을 補하므로 五臟이나 下焦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下焦藥으로 쓰고, 手足少陰經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桂心과 肉桂를 구별하였는데, 肉桂는 紫色이면서 두터운 것이 좋고 겉껍질을 깎아서 사용하고, 桂心은 겉질의 甲錯한 것을 깎아버리고 속의 매운 맛을 가진 부분만을 취하며, 桂皮 1斤에 5兩을 취한다고 하였다. 肉桂의 功效는 補火助陽, 散寒止痛, 活血通經이고, 久病에 正氣가 虛하고 氣血이 부족한 증상에 肉桂와 人參·白朮·當歸·熟地黃 등의 補氣養血藥과 함께 쓰면 溫運脾陽, 通利血脈, 鼓舞生機, 增強補益氣血之功이 있다. 예를 들면 十全大補湯, 人參養榮湯, 保元湯 등인데⁶⁸⁾, <東醫寶鑑> <小兒門·保元湯>⁶⁹⁾은 痘瘡를 치료하고 7~8일에 肉桂와 枳實을 더 넣어 陽氣를 發陽시킨다고 하였다. <東醫寶鑑> <火門·辨陽虛陰虛二證>에도 氣血이 모두 虛하여 熱이 날 때는 升陽滋陰 시켜야하므로, 九種心痛을 치료하고 瘀血을 해치고 背脊이 차고 아픈 것을 멈추게 하는 桂心보다는 補火助陽, 散寒止痛하는 肉桂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積勞虛損과 榮血不足으로 肝이 虛할 때 사용하는 人參養榮湯에 새로 첨가된 防風의 작용은 氣血이 부족하고 虛勞가 쌓여 생긴 寒熱自汗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實表止汗하는 防風을 加하여 風邪를 없애고 止汗하는 작용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人參養榮湯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防風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생각되며,茯苓을 뺀 이유는 氣血이 부족하고 살이 빠지고 권태롭고, 숨이 짧아 숨을 잘 쉴 수 없는 虛勞의 상태이므로 氣를 내리고 濕을 제거하는茯苓을 뺀 것이다. 또 桂心を 肉桂로 바꾼 이유는 九種心痛을 치료하고 瘀血을 해치고 背脊이 차고 아픈 것을 멈추게 하는 桂心보다 補火助陽, 散寒止痛, 活血通經하는 肉桂로 바꾸는 것이 氣血不足으로 인한 虛勞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존의 中國文獻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약물구성으로 氣血不足과 寒熱自汗을 더욱 강조하여 치료하기 위한 <東醫寶鑑>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3) <東醫寶鑑>과 <萬病回春>의 인용 비교

<東醫寶鑑>과 <萬病回春>의 人參養榮湯 처방구성에 있어서는 桂心を 肉桂로 바꾸고,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加한 것이다. 이렇게 바뀐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東醫寶鑑>이 문헌을 인용하고 필사하는 중에 약재가 바뀐 경우 중에 하나이고, 이

治九種心痛 殺三虫 破血 止腹內冷痛. 治一切風氣 補五勞七傷 通九竅 利關節 益精明目 緩腰膝 除風痺 破痰癖癥瘕 消瘀血 積筋骨 生肌肉 下胞衣. 卽是剷除皮上甲錯處 取近裏辛而有味. 桂皮一斤 只得五兩 爲正. <本草>

58) 許浚: 對譯東醫寶鑑, p. 168
四君子湯 補真氣虛弱 治氣短 氣少.
人參去蘆 白茯苓 白朮 甘草灸 各一錢二分半 右剉 水煎服. <局方>
方氏曰 人參 補肺扶脾 白朮 健脾燥濕 茯苓 降氣滲濕 甘草 補胃和中 譬如寬厚和平之君子 不爲奸險卒暴之行也.
醫鑑曰 人參 補元氣 白朮 健脾胃 茯苓 滲濕 又引人參下行 補下焦元氣. <入門>
59) 上揭書, pp. 167-168.
人參膏
人參 治脾肺陽氣不足 能補氣 促短氣少氣 非升麻爲引用 不能補上升之氣. 升麻一分 人參三分 爲相得也. 若補下焦元氣 瀉腎中火邪 茯苓爲之使. <東垣>
60) 上揭書, p. 291
二陳湯
通治痰飲諸疾 或嘔吐惡心 或頭眩心悸 或發寒熱 或流注作痛. 半夏製 二錢 橘皮 赤茯苓 各一錢 甘草灸 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水煎服. <正傳>
方氏曰 半夏 豁痰燥濕 橘紅 消痰利氣 茯苓 降氣滲濕 甘草 補脾和中 蓋補脾 則不生濕 燥濕滲濕 則不生痰 利氣降氣 則痰消解 可謂體用兼該 標本兩盡之藥 用者 隨證加減. <丹心>
61) 上揭書, p. 331
六味地黃丸
血虛陰衰 熟地黃爲君 精滑 山茱萸爲君 小便或多或少 或赤或白 茯苓爲君 小便淋瀝 澤瀉爲君 心氣不足 牡丹皮爲君 皮膚乾澀 山藥爲君. <綱目>
62) 上揭書, p. 428
茯苓 治五淋 主小便不通 利水道. 煎服末服并佳. <本草>
63) 上揭書, p. 498
半夏白朮天麻湯
頭痛若甚 謂之足太陰痰厥頭痛 非半夏不能療 …… 澤瀉茯苓 利小便導濕 ……
64) 上揭書, p. 925
凡小便不利 以黃柏知母 爲君 茯苓澤瀉 爲佐.
65) 上揭書, p. 167
東垣曰 氣短 小便利者 四君子湯 去茯苓 加黃芪補之.
66) 上揭書, p. 1964
桂心

67) 上揭書, p. 1964
肉桂
能補腎 宜入治藏 及下焦藥 入手足少陰經 色紫而厚者佳 刮去皺皮用. <入門>
68) 高學敏: 中藥學, p. 168
藥物功效 補火助陽 散寒止痛 活血通經.
久病正虛 氣血不足等證. 以少量肉桂與人參·白朮·當歸·熟地黃等 補氣養血藥同用 則能溫運脾陽 通利血脈 鼓舞生機 增強補益氣血之功. 如十全大補湯 人參養榮湯 保元湯等.
69) 上揭書, p. 1734
保元湯
人參二錢 嫩黃芪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一片 水煎服. <醫鑑>
七八日 毒化膿漿而不瀉 宜加官桂糯米 發陽助漿.

것이 옳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⁷⁰⁾. 물론 수많은 문헌을 직접 찾아서 원본과 대조하면서 책을 저술하기란 엄청난 작업이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헌을 실수로 빠트리거나 약물이름이나 처방구성, 내용이 원본과 다르게 오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용문헌과 다른 경우에 바뀐 내용이 한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바꾸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지 약물이 인용문헌과 다르다고 옳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東醫寶鑑》 <內景篇·卷之一·歷代醫方>에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이 모두 명나라 龔信的 著作으로 되어있는데, 중국에서 간행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萬病回春》은 龔廷賢의 著作으로 보고, 《古今醫鑑》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內景篇·歷代醫方>에 기술된 《古今醫鑑》은 龔信的 著作으로, 《萬病回春》은 龔廷賢의 著作으로 되어야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⁷¹⁾. 《東醫寶鑑》에 引用된 《萬病回春》의 내용을 살펴보면 內景篇이 135회, 外形篇이 118회, 雜病篇이 264회, 湯液篇이 9회, 鍼灸篇이 1회로 총 528회가 인용되고 있다⁷²⁾.

《東醫寶鑑》에서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萬病回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첫째, 《萬病回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중복되거나, 전체적인 내용상 생략되어도 무방한 醫學理論, 適應症狀, 修治方法, 製造方法, 服用方法, 隨症加減法들을 간략하거나 생략을 하고 있다. 둘째, 처방을 인용되면서 필요한 경우 증상에 따라 몇 가지 약물들을 새로이 첨가하고 있고⁷³⁾, 약물의 양이 재조정된 경우⁷⁴⁾, 약물의 순서가 재조정된 경우, 약물이 바뀐 경우, 처방의 명칭이 달라진 경우가 있다. 셋째, 《東醫寶鑑》과 《萬病回春》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볼 때 傳寫上의 誤謬도 있다⁷⁵⁾.

(4) 《東醫寶鑑》의 처방에서 인용 문헌과 다른 경우

《東醫寶鑑》에는 수많은 처방들이 인용되어 수록되었는데

실제로 문헌을 고찰해보면, 《東醫寶鑑》이 인용한 원전 처방에는 약물이 있는데 《東醫寶鑑》에는 없는 경우, 약물이 추가된 경우, 人蔘養榮湯처럼 인용한 원전 처방과 약물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內傷門>의 香砂養胃湯⁷⁶⁾은 출전은 《古今醫鑑》이지만 《古今醫鑑》에는 香砂養胃湯을 찾을 수 없고 《萬病回春》⁷⁷⁾에 香砂養胃湯이 있다. 여기에 흥미로운 내용은 《東醫寶鑑》·內傷門>의 香砂養胃湯에 처방의 명칭은 香附子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처방 구성에는 香附子가 없고, 《萬病回春》의 香砂養胃湯은 香附子가 있다는 사실이다⁷⁸⁾.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원전 처방에는 약물이 없는데 《東醫寶鑑》에서는 약물이 추가된 경우를 살펴보면, 《東醫寶鑑》<氣門·氣痛>에 쓰는 小烏沈湯⁷⁹⁾의 인용 문헌은 《和劑局方》이다. 그런데 《和劑局方》에는 香附子·烏藥·甘草뿐이고 沈香은 없다. 《世醫得效方》과 《景岳全書》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⁸⁰⁾.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인용된 처방의 약물 구성이 다르거나, 오히려 더 첨가되어 새로운 처방으로 된 경우, 또는 약물이 바뀌어진 경우도 있다. 시대에 따라서 처방의 구성과 약의 용량이 변해오듯이 《東醫寶鑑·集例》에 이미 약의 용량과 약재의 수에 대해 기준을 밝혀놓았다. 옛 사람들의 藥方은 들어가는 약재의 양과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대로 쓰기가 곤란하니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에 나오는 약재의 양을 기준으로 삼았다⁸¹⁾고 했다. 따라서 《東醫寶鑑》<虛勞門·陰陽俱虛用藥>에 나오는 人蔘養榮湯은 《萬病回春》을 인용하였지만 약물구성에서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새로 추가한 것은 인용상의 오기가 아니라, 氣血不足과 寒熱自汗의 증상을 더욱 강조하여 치료하기 위한 《東醫寶鑑》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2. 方劑學的 考察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처음 나오는 人蔘養榮湯은 養榮湯으로도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醫書에는 人蔘養榮湯으로 나온다. 人蔘養榮湯은 益氣補血, 養心安神하는데 脾氣가 精을 昇散하고 肺에 上輸하며, 肺는 主治節하여 水道通調해 膀胱으로 下輸하는데, 脾와 肺가 虛하면 上下의 輸가 이루어지지 않아 榮血이 不足된다. 脾虛로 食少하고 肺虛로 氣短하며 榮虛血少로 心失其養하여 驚悸健忘 寢汗發熱하며, 血虛火盛으로 肌瘦色枯 毛髮脫落

70) 허봉희 : 東醫寶鑑의 방제 인용과정에서 나타난 오기 연구,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001, Vol14, No1, p.277

71) 梁榮堉 :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影響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p.3

72) 上揭書, p.9

73) 上揭書, p.14
萬病回春(卷上)·傷寒, p.76

清火化痰湯 治熱痰在胸膈間不化 吐不出 寒熱氣急 滿悶作痛者 名結核.
黃連 黃芩 梔子 瓜蒌仁 貝母 桔梗 桑白皮 甘草 木香 杏仁 右一劑 生薑三片 水煎. 入竹瀝薑汁少許 磨木香同服.

東醫寶鑑·痰飲門·痰厥, p.286

清火化痰湯 治熱痰結在胸膈 嘔吐不出 滿悶作痛 名痰結.
半夏製 陳皮 赤茯苓 各一錢 桔梗 枳殼 瓜蒌仁 各七分 黃連 黃芩 梔子 貝母 蘇子 桑白皮 杏仁 芒硝 各五分 木香 甘草 各三分 右作一貼 薑三片 同煎 至半 納芒硝熔化 去滓 又入竹瀝薑汁 調服.(回春)

74) 上揭書, p.15
萬病回春(卷上)·內傷, p.102

益氣丸

治語言多損氣頹語 補中益氣.

麥門冬去心 人蔘 各三錢 橘皮 桔梗 甘草炙 各五錢 五味子 二十一粒 右爲極細末 水浸油餅爲丸. 如鷄頭大 每服一丸 細嚼津唾嚥下 油餅和細燒餅也.
東醫寶鑑·氣門·少氣, p.168

益氣丸
治言語多損氣氣少頹語 能補上益氣.

人蔘 麥門冬 各七錢 橘皮 桔梗 甘草炙 各五錢 五味子 二十一粒 右極細末 水浸油餅和丸 芡實大 每一丸 細嚼津唾嚥下. 油餅乃和油燒餅也.(回春·易老)

75) 上揭書, p.19

76) 許浚 : 對譯東醫寶鑑, p.1146

香砂養胃湯 治飲食不思 痞悶不舒 此胃寒也. 白朮一錢 縮砂 蒼朮 厚朴 陳皮 白茯苓 各八分 白豆蔻七分 人蔘 木香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 二水煎服.(醫鑑)

77) 龔廷賢 : 萬病回春, p.105

香砂養胃湯 香附 砂仁 蒼朮 厚朴 陳皮 各八分 人蔘 五分 白朮 一錢 茯苓 八分 木香 五分 白豆蔻 六分 甘草炙.

78) 金弘敏 : 東醫寶鑑補遺, p.79

79) 許浚 : 對譯東醫寶鑑, p.171

小烏沈湯 治諸氣心腹刺痛 香附子二兩 烏藥一兩 沈香 甘草 各二錢半. 右爲末 每一錢 沸薑湯點服.(局方)

80) 金弘敏 : 東醫寶鑑補遺, p.118

81) 許浚 : 對譯東醫寶鑑, p.11

古人藥方所入之材 兩數太多 卒難備用 局防一劑之數尤多 貧寒之家何以辦此. 得效方 醫學正傳 皆以五錢爲率 甚爲鹵莽. 蓋一方只四五種 則五錢可矣 而至於三十種之藥 則一材僅入一二分 性味微小 焉能貴效. 惟近來古今醫鑑 萬病回春之藥 一貼七八錢 或至一兩 藥味全而多寡適中 合於今人之氣稟. 故今者悉從此法 皆折作一貼 庶使劑用之便易云.

하며 小便赤澀 등을 치료한다⁸²⁾.

약물 구성에서는 중국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을 기준으로 茯苓과 桂心이 들어있는 처방으로 전해졌고, 《東醫寶鑑》이후 한국은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桂心이 肉桂로 바꾸고, 茯苓이 빠지고 防風이 새로 加味됐다.

먼저 중국 문헌에 나와있는 人蔘養榮湯의 방제의의를 살펴보면 手少陰, 手足太陰의 氣血藥으로 脾氣가 虛弱하여 營血이 不足하므로 나타나는 驚悸健忘, 寢汗發熱, 食少無味, 身倦肌瘦를 치료하며, 肺氣虛弱으로 인한 色枯氣短, 毛髮脫落, 小便赤澀 등을 치료한다. 또 땀을 과다하게 흘려서 몸이 떨리고 脈이 요동을 치고 筋肉이 움찔거리는 증상도 치료한다. 熟地黃 · 當歸 · 白芍은 養血하고 人蔘 · 黃芪 · 白朮 · 甘草 · 陳皮는 補氣하여 血이 부족하면 氣를 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陽이 生한 즉 陰이 長한다는 뜻이다. 또 人蔘 · 黃芪 · 五味子是 補肺하고 甘草 · 茯苓 · 白朮은 健脾하며 芍藥 · 當歸는 養肝하고 熟地黃은 滋腎하며 遠志는 能히 腎氣를 心臟에 通達케 하고 桂心은 能히 諸藥을 導하여 營分에 들어가 生血케 하여 五臟이 서로 養하고 補益되어 諸病이 치료된다. 加減法에는 便精遺泄에는 龍骨을 加하고 咳嗽에는 阿膠를 加한다⁸³⁾. 《東醫寶鑑》에 나와있는 人蔘養榮湯에 대한 방제의의를 살펴보면, 脾肺氣虛로 인한 榮血이 不足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養榮시켜 치료하는 方劑로서 人蔘 · 白朮 · 甘草는 四君子湯에서 茯苓이 없고, 白芍 · 當歸 · 熟地黃은 四物湯에서 川芎이 없으나, 四君子湯과 四物湯의 意가 內包되어 있어 補血補陰 補氣補陽의 功效가 있다. 人蔘 · 黃芪 · 五味子是 補肺하여 氣로 하여금 生血케 하고, 甘草 · 陳皮 · 白朮은 健脾하여 統血케 하며, 當歸 · 白芍은 養肝하여 藏血케 하고, 熟地黃은 滋腎하여 腎精으로 하여금 血을 生하게 하며, 黃芪 · 防風은 固表하고, 陳皮 · 生薑은 疏通祛痰하며, 五味子是 補肺潤津하고, 肉桂는 溫散하고 諸藥을 能導하여 入營生血케 하며, 大棗는 補營하고, 甘草는 和諸藥하며, 遠志는 腎氣를 能通하여 心에 上達케 하니, 이 처방은 '養榮'의 功效가 있다⁸⁴⁾.

人蔘養榮湯에 川芎을 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東醫寶鑑 · 湯液篇》에 川芎은 모든 風病, 氣病, 勞損, 血病을 치료하고, 오래된 瘀血을 헤치며 피를 생겨나게 하고, 吐血, 衄血, 尿血, 便血을 멎게 한다. 또 川芎에는 금기사항이 있는데 川芎 한 가지만 먹거나 오랫동안 먹으면 眞氣가 흩어져 갑자기 죽게 할 수 있어서 반드시 다른 약을 佐藥으로 써야 하고 骨蒸熱이 나거나 땀이 많은 사람은 더욱 오랫동안 먹지 말아야 한다⁸⁵⁾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東醫寶鑑》 <火門 · 陰虛火動>의 陰虛生內熱湯에는 오랫동안 먹을 때에는 川芎을 빼고 사용하라⁸⁶⁾고 되어 있다. 《東

醫寶鑑》 <婦人門 · 產後虛勞>에 해산 후에 힘겨운 일을 지나치게 하여 생긴 병을 蓐勞라고 하는데, 虛하고 살이 마르며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고, 때로 기침하며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아프며 목이 마르고 식은땀이 나며 추웠다 열이 나는 것이 瘧疾과 비슷한 데에는 十全大補湯에 川芎을 빼고 續斷 · 牛膝 · 鱉甲 · 桑寄生 · 桃仁을 더 넣는다⁸⁷⁾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 <血門 · 通治血病藥餌>에 四物湯은 血病을 두루 치료하는데, 川芎은 血藥中에 氣藥이고 肝經을 통하게 하며 맛이 맵고 흠여지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血이 氣에 滯한 것을 잘 들게 한다⁸⁸⁾고 하였다. 人蔘養榮湯은 虛勞로 榮血이 不足하여 發熱과 自汗의 증상에 사용하는데 川芎은 血中之氣藥으로 辛散하므로 骨蒸, 多汗者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人蔘養榮湯에 들어있는 四物湯中에서 川芎을 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氣血俱虛의 증상을 치료하는 氣血雙補劑에 대표방은 八珍湯, 十全大補湯, 人蔘養榮湯 등이 있다. 八珍湯은 氣血의 平補를 위주로 하며, 十全大補湯은 氣血의 溫補에 치중하였고, 人蔘養榮湯은 益氣補血, 養心安神의 양쪽을 치료하는 처방이다⁸⁹⁾.

3. 形象醫學의 考察

人蔘養榮湯은 益氣補血, 養心安神하는데 脾肺의 氣가 虛하고 榮血이 부족하여 虛勞가 쌓여 虛損이 되어 氣血이 不足하고 몸이 마르고 나른하며 숨이 짧고 잘 먹지 못하거나, 寒熱自汗을 치료한다.

芝山은 肝이 虛해졌을 때 人蔘養榮湯을 쓴다⁹⁰⁾고 하였고, 나아가 50대면 肝氣가 衰할 시기이니까 人蔘養榮湯이 本治藥이 되고⁹¹⁾, 濕이 처져서 寒으로 流入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肝의 役割이라고 했는데 이때 쓸 수 있는 藥이 人蔘養榮湯이고⁹²⁾, 肝의 大小 · 高底 · 剛柔 · 正偏을 나타내는 形象이 있을 경우에는 虛勞의 肝虛로 보고 人蔘養榮湯을 쓸 수 있다⁹³⁾고 하였다.

人蔘養榮湯은 白芍藥을 君藥으로 삼고 있고, 白芍藥은 肝의 收斂 운동을 좋게 해주는 약이다. 인체에서 배(腹)는 肝의 집이고, 얼굴에서는 코가 肝에 속하므로, 배(腹)의 운동하는 힘이 좋은 사람이 50대가 되어서, 배에 힘이 빠져 나타나는 虛勞證에 사

治陰虛煩熱火動等證. 當歸 川芎 芍朮 陳皮 各八分 白朮 麥門冬 沙參 各七分 白芍藥 梔子 天花粉 各六分 玄參五分 黃芪三分 甘草二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水煎服. 久服 去川芎 冬月 加破故紙. <入門>

87) 上揭書, p. 1638

產後虛勞

產後勞傷過度 名曰蓐勞 其證虛羸 乍起乍臥 飲食不消 時有咳嗽 頭目昏痛 發渴盜汗 寒熱如瘧. 十全大補湯(方見虛勞) 去川芎 加續斷 牛膝 鱉甲 桑寄生 桃仁 爲蠶末 先將豬腎一對 薑一片 棗三枚 水三盞 煎至一盞半 入前藥末三錢 及葱白三寸 烏梅一箇 荊芥五穗 再煎至七分 去滓 空心溫服. <入門>

88) 上揭書, p. 230

四物湯

通治血病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各一錢二分半 右剉作一貼 水煎服. <局方>

劉宗厚曰 欲求血藥 其四物之謂乎. 夫川芎 血中氣藥也 通肝經 性味辛散 能行血滯於氣也.

89) 許濟群 : 中醫方劑學, p. 290

90) 大韓傳統韓醫學會編 :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 222

91) 大韓傳統韓醫學會編 :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Ⅱ, p. 172

92) 上揭書, p. 80

93) 大韓傳統韓醫學會編 :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p. 222

82) 신재용 : 方藥合編解說, p. 42

83) 김순수 외 : 方劑學, pp. 121-122.

84) 신재용 : 方藥合編解說, pp. 42-43.

85) 許浚 : 對譯東醫寶鑑, p. 1923

芍藥

治一切風一切氣 一切勞損一切血 破宿血 養新血 止吐衄血 及尿血便血 除風寒入腦頭痛 目淚出 療心腹脇冷痛.

芍藥 若單服久服 則走散眞氣 或致暴死 須以他藥佐之 骨蒸多汗者 尤不可久服. <本草>

86) 上揭書, p. 1117

陰虛生內熱湯

용한다. 여자는 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많이 사용하고, 얼굴이 상중하로 생긴 血科⁹⁴⁾에 사용하며, 얼굴이 길면 血이 나쁘고, 얼굴이 길게 생긴 사람은 대체로 마른 사람이 많고 뚱뚱한 사람은 없는 편이다⁹⁵⁾. 또 血科는 血이 形을 養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血病이 오기 쉽다⁹⁶⁾. 그러므로 人蔘養榮湯은 榮血이 不足하여 虛勞가 쌓여 생긴 血虛의 증상에 사용하므로 血科에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人蔘養榮湯을 사용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虛勞의 관점에서 볼 때 血氣가 不足되어서 온 것이므로 血色이 좋지 않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밥을 잘 못 먹고 津液이 빠지며 땀이 나고 熱이 나거나⁹⁷⁾, 子宮을 제거했을 경우에 虛勞로 봐야 한다⁹⁸⁾고 하였고, 潮熱이 있으면 體內的 津液이 마르기 때문에 뼈마디가 아프고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에 사용한다고 하였다⁹⁹⁾.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人蔘養榮湯은 첫째, 臟腑의으로는 脾, 肺, 肝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며, 둘째, 주로 여자, 50대, 얼굴이 상중하로 생긴 血科나 血色이 좋지 않을 때, 배의 운동작용이 안되는 사람, 코가 위주인 사람에게 사용하고, 셋째, 症狀으로는 虛勞證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고 살이 마르고 潮熱, 自汗에 활용한다.

이상의 관점을 통하여 《芝山形象醫案》과 세운한의원, 도인한의원, 양천경희한의원에서 치료한 人蔘養榮湯의 臨床例를 발표하고자 한다.

총괄 및 고찰

人蔘養榮湯은 宋代의 陳師文 등이 저술한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처음 나오는 처방으로 白芍藥을 君藥으로 한 十全大補湯의 加減方이다. 처방의 명칭은 대부분 人蔘養榮湯으로 불리고 문헌에 따라 養營湯, 養榮湯이라고 하며, 丸을 만들어 人蔘養榮丸이라고 한다. 처방 구성은 十全大補湯에 川芎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한 것으로 益氣補血, 養心安神하여 脾肺의 氣가 虛하고, 榮血이 부족하여 虛勞가 쌓여 虛損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인 惡寒發熱, 肢體瘦倦, 食少作瀉, 口乾心悸, 自汗 등을 치료한다.

《東醫寶鑑》에 人蔘養榮湯은 <氣門·短氣>, <耳門·勞聾>, <火門·潮熱>, <火門·辨陽虛陰虛二證>, <虛勞門·陰陽俱虛用藥>에 나오는데, 虛損이 되어 氣血이 不足하고 몸이 마르고 나른하며 숨이 짧고 잘 먹지 못하거나, 寒熱自汗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人蔘養榮湯의 약물 구성은 중국문헌과 한국문헌에서 차이가 있었다. 중국문헌에서는 《太平惠民和劑局方》을 기준으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물의 용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처방의 약물구성은 거의 같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東醫寶鑑》以前시대인 《醫方類聚》, 《醫林撮要》에서는 약물구성이나 용량이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거의 비슷하지만, 《東醫寶鑑》에서는

十全大補湯에서 川芎과 茯苓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하고,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防風을 새로 첨가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中國文獻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약물 구성이다.

《東醫寶鑑》의 人蔘養榮湯 主治證을 《萬病回春》과 비교하면, 《東醫寶鑑》은 氣血不足과 寒熱自汗의 증상이 첨가되고, 다른 主治證은 거의 비슷하지만 처방의 약물 구성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萬病回春》과는 다르게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茯苓을 去하고, 防風을 새로 첨가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약물구성으로 人蔘養榮湯을 재구성하였다. 《東醫寶鑑》以後 《濟衆新編》, 《醫宗損益》, 《方藥合編》 등의 한국 문헌들은 《東醫寶鑑》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것은 《東醫寶鑑》을 큰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학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겠다.

防風은 發表散風, 勝濕止痛, 解痙定搐 하고 여러 가지의 風證을 치료한다. <津液門·自汗>의 玉屏風散에 防風과 黃芪는 表의 氣를 든든하고, <風門·破傷風之治 同傷寒三法>의 白朮防風湯에 防風이 들어가서 땀을 과다하게 내었거나 저절로 땀이 맺히지 않고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또 <肝臟門·肝病治法>에 補肝丸은 四物湯에 防風과 羌活로 血이 虛하여 나타나는 肝虛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四物湯으로 血을 보충하고 防風과 羌活이 肝의 升發하는 기운을 도운다. 그러므로 積勞虛損과 榮血不足으로 肝이 虛할 때 사용하는 人蔘養榮湯에 새로 첨가된 防風의 작용은 氣血이 不足하고 虛勞가 쌓여 생긴 寒熱自汗을 치료하기 위해서 實表止汗하는 防風을 加하여 風邪를 없애고 止汗하는 작용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人蔘養榮湯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防風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東醫寶鑑》에 나와 있는 茯苓은 腎의 火邪를 瀉하여서 氣를 내리고, 濕을 제거하여 小便을 잘 나가게 하는 작용을 하고, <氣門·短氣>에는 숨을 연달아 쉬지 못하고 오름이 잘 나오는 데는 四君子湯에 茯苓을 빼고 黃芪를 더 넣어서 補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茯苓을 뺀 이유는 短氣에 茯苓이 氣를 내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東醫寶鑑》의 人蔘養榮湯에서 茯苓을 뺀 이유는 氣血이 不足하여 살이 빠지고 권태롭고, 숨이 짧아지고, 寒熱自汗의 虛勞 상태이므로, 만약 氣를 내리고 濕을 제거하면 氣血不足의 조건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茯苓을 去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추측된다.

《東醫寶鑑》에 桂心은 九種心痛을 치료하며 瘀血을 해치고 뱃속이 차고 아픈 것을 멈추며 모든 風氣를 없애고, 肉桂는 腎을 補하므로 五臟이나 下焦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下焦藥으로 쓰고, 手足少陰經에 들어간다고 하였고, 《東醫寶鑑》 <小兒門·保元湯>에 肉桂는 陽氣를 發陽시킨다고 하였다. 《東醫寶鑑》 <火門·辨陽虛陰虛二證>에 氣血이 모두 虛하여 熱이 날 때는 升陽滋陰을 시켜야 하므로 九種心痛을 치료하고 瘀血을 해치고 뱃속이 차고 아픈 것을 멈추게 하는 桂心보다는 補火助陽, 散寒止痛하는 肉桂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十全大補湯에서 川芎과 茯苓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하고,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防風을 새로 첨가한 人蔘養榮湯은 기존의 문헌에 나와 있는 主治證과 함께 氣血不足과 榮血

94) 大韓傳統韓醫學會編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p. 109

95) 大韓傳統韓醫學會編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p. 66

96) 上揭書, p. 54

97) 上揭書, p. 106

98) 大韓傳統韓醫學會編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p. 130

99) 大韓傳統韓醫學會編 :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p. 328

이 부족하여 肝이 虛해서 나타나는 寒熱自汗의 치료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새로 바꾸어놓은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東醫寶鑑》은 中國醫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中國醫學 서적의 내용들을 재편집하고 기존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醫學으로 결실을 맺었는데¹⁰⁰⁾, 人蔘養榮湯도 그 중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形象醫學 관점에서 人蔘養榮湯에 적용하는 形象과 症狀은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사용하며, 나이는 肝이 衰해지는 시기인 50대, 얼굴이 상중하로 생긴 血科나 血色이 좋지 않을 때, 산근에 주름이 있거나, 코를 위주로 한 사람, 인당이 鬱해 있을 때, 症狀은 虛勞證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고 살이 마르고 寒熱往來, 自汗에 활용한다.

臨床例를 形象과 症狀에 따라 도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人蔘養榮湯의 臨床例

번호	성별	연령	形色	脈	症狀	考察
1	여자	68세	血科 鼻大, 面黃	70/70	無氣力, 眩暈, 惡心, 少食, 입맛이 없다, 多汗.	老因血衰 血虛, 虛勞
2	여자	39세	血科, 鼻大, 코등에 주름	62/60	등이 화끈거리고 얼굴에 上熱感, 자궁적출 수술, 주위 수술	陰血不足, 수술
3	여자	55세	膀胱體, 鼻長	59/63	寒熱往來, 피로, 무기력, 惡心悸, 食無味, 右肩疼痛	虛勞, 血虛
4	여자	54세	鼻柱에 주름이 많다	72/72	寒熱往來, 배에 얼음 올려놓은 듯.	肝虛
5	여자	61세	눈 ↑, 코 ↑ 印堂이 정그려짐	66/60	왼쪽 영치가 아프면서 저림, 얼굴이 화끈거리고, 寒熱往來.	印堂鬱, 陰血不足
6	여자	52세	코가 휘었음	60/60	身重, 疲勞, 手足이 ʼ수ʼ시고, 左양치통, 머리가 맑지 않고, 오후에 얼굴이 화끈거림.	虛勞
7	여자	53세	肥人, 코가 발달	72/66	上熱感, 발바닥이 통증.	肝虛
8	남자	35세	瘦人, 口大	82/82	肉脫, 耳聾, 梅核氣, 左側腰痛, 嘔吐, 眩暈, 消化不良, 泄瀉, 疲勞, 주위, 心下痞.	氣血不足
9	여자	51세	血色이 없다	63/68	上熱感, 無氣力, 疲勞, 눈이 침침, 周身疼痛.	50대, 虛勞
10	여자	54세	膀胱體, 面赤, 手掌黃色	58/58	寒熱往來, 自汗, 兩肩疼痛, 嘔逆, 발바닥이 뜨겁다.	陰血不足, 更年期症 狀
11	여자	48세	膀胱體 陽明, 觀骨赤	63/64	寒熱往來, 上熱感, 不眠, 감기기운, 口乾, 食無味, 消化不良, 心下痞, 浮腫.	血虛, 更年期症 狀
12	여자	64세	觀骨大, 面赤	88/87	疲勞, 自汗, 腰背痛, 口乾, 食無味, 消化不良, 上熱感, 痰出, 中脘, 전중에 壓痛.	氣血不足, 虛勞
13	여자	50세	精科, 耳大 面帶赤, 코 ↓	69/66	面 上熱感, 汗出, 2년전 子宮手術后 호르몬제 복용하다 中斷, 全身痛, 발목 시큰함.	更年期症 狀
14	여자	45세	陽明形, 甲 類, 乳房大, 입비늘음	60/58	寒熱往來, 生理遲延, 空腹時 眩暈, 앞구리 담결림, 신경쓰면 便秘.	肝虛, 更年期症 狀
15	여자	46세	厥陰, 太陰 形 濕體, 배나음.	70/70	하루에 여러 번 寒熱往來, 汗出, 2개월째 無月經, 眩暈, 惡心, 右側 팔아프고, 手足 ʼ뻣뻣ʼ, 늘 감기기운.	更年期症 狀
16	여자	85세	臍體, 神科	65/65	後頭痛, 眩暈, 口乾, 小便頻數, 寒熱往來, 消化不良.	氣血不足, 老人
17	여자	45세	觀骨大, 口大	80/78	上熱感, 心喘, 自汗, 口渴, 자궁적출	氣血不足, 수술

100) 梁榮坡 :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影響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p. 21

위의 人蔘養榮湯 臨床例 17례를 분석해보면 16례는 여자가 고 1례만 남자로, 주로 여자에게 많이 사용하였다. 人蔘養榮湯은 血虛의 병증에 사용하고 여자는 血을 위주로 만들어 졌으므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많이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이는 30대 2명, 40대 4명, 50대 7명, 60대 3명, 80대 1명으로 40~50대가 11명으로 64 %이고, 나이가 젊은 30대보다는 50대 이상의 노인이 더 많았다. 이것은 나이가 50대면 肝氣가 衰할 시기이니까 人蔘養榮湯이 本治藥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밥을 잘 못 먹고 津液이 빠지며 汗이 나고 熱이 나는 虛勞의 증상에 사용한다는 芝山 선생의 이론과 일치한다.

精氣神血科에 따른 臨床例에서는 얼굴이 상중하로 생긴 血科에게 血虛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얼굴이 길면 血이 나쁘며, 血科는 血이 形을 養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血病이 오기 쉽다. 人蔘養榮湯은 榮血이 부족하여 虛勞가 쌓여 생긴 血虛의 증상에 사용하므로 血科에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血虛와 연관된 形象의 臨床例에서는 주로 코가 길게 내려먹은 경우가 많고, 또 코의 산근에 주름이 있거나, 인당이 鬱한 경우도 있었다.

症狀에 따른 臨床例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얼굴에 上熱感과 寒熱往來, 自汗, 口乾, 飲食無味, 腰背痛과 疲勞의 증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虛勞의 常症, 즉 飲食減少, 精神昏短, 遺精夢泄, 腰背胸脇 筋骨引痛, 潮熱自汗, 痰盛咳嗽의 증상과 유사하다. 또 자궁적출 수술을 한 경우가 있는데, 芝山은 子宮을 제거했을 경우에 虛勞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人蔘養榮湯의 임상례를 분석해본 결과, 人蔘養榮湯에 적용하는 形象과 症狀은 첫째, 주로 여자에게 많이 활용하고 둘째, 나이는 肝이 衰해지기 쉬운 50대에게 활용하며 셋째, 얼굴이 상중하로 생긴 血科에게 활용하며 넷째, 코가 길게 내려 먹은 경우나 인당이 鬱한 경우에도 활용하고 다섯째, 症狀은 虛勞證이 있을 때 人蔘養榮湯을 활용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

결론

人蔘養榮湯에 대한 文獻考察과 方劑學的 考察, 形象醫學의 인 관점을 응용한 治驗例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人蔘養榮湯은 宋代의 陳師文 등이 저술한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처음 나오는 처방으로 오래된 虛勞와 虛損에 사용하며, 脾肺氣虛, 榮血不足의 증상을 치료하고, 약물구성은 十全大補湯에 川芎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한 처방으로 주로 중국에서 쓰고 있는 처방이다. 한국에서는 《東醫寶鑑》을 기준으로 十全大補湯에 川芎과 茯苓을 去하고, 陳皮·五味子·遠志를 加하고, 桂心을 肉桂로 바꾸고, 防風을 새로 첨가한 처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榮血이 부족하고 肝이 虛해서 나타나는 寒熱自汗의 치료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形象醫學 관점에서 人蔘養榮湯에 적용하는 形象과 症狀은 다음과 같다.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많이 활용한다. 나이는 肝이 衰해지는 시기인 50대에 활용한다. 얼굴이 상중하로 생긴 血科나 血色이 좋지 않을 때 활용한다. 산근에 주름이 있거나, 코를 위주로 한

사람에게 활용한다. 인당이鬱한 경우에도 활용한다. 症狀은 虛勞證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고, 살이 마르고, 寒熱往來, 自汗에 활용한다. 臨床例를 분석한 결과 주로 여자, 50대, 血科, 科를 위주로 한 사람, 虛勞證에 유효하였다.

참고문헌

1. 陳師文 等. 太平惠民和劑局方. 欽定四庫全書 9. 서울, 대성문화사. 1995.
2. 江克明 外. 校正方劑大辭典. 서울, 의성당. 1991.
3. 許浚. 對譯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1999.
4. 신재용. 方藥合編解說. 서울, 성보사. 1988.
5. 龔廷賢. 增補萬病回春. 서울, 의성당. 1993.
6. 陳無擇. 三因方.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3.
7. 危亦林. 世醫得效方. 서울, 의성당. 1990.
8.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9. 樓英. 醫學綱目. 台南, 北一出版社. 1973.
10.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대성문화사. 1989.
11.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12.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도서출판 정담. 1999.
13.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4. 汪詒庵. 醫方集解. 台北市, 文光圖書有限公司. 1986.
15. 羅美. 古今名醫方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16. 陳偉 外. 中醫基礎理論叢書·方劑學. 서울, 의성당. 1993.
17. 李飛 主編. 方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18. 金禮蒙 等. 校正醫方類聚. 서울, 의성당. 1993.
19. 양예수. 醫林撮要. 서울, 흑조사. 1965.
20. 康命吉. 濟衆新編. 서울, 여강출판사. 1992.
21. 黃度淵. 醫宗損益. 서울, 여강출판사. 1993.
22.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 남산당. 1977.
23. 이상인. 본초학. 서울, 학림사. 1975.
24. 高學敏. 中藥學. 서울, 의성당. 1994.
25. 汪昂. 本草備要解析. 서울, 의성당. 1993.
26. 徐富一 外. 임상 한방본초학. 서울, 영림사. 2004.
27. 金弘敏. 東醫寶鑑補遺. 서울, 의도출판사. 1997.
28. 강순수 외. 方劑學. 서울, 계축문화사. 1979.
29. 許濟群. 中醫方劑學. 서울, 음양택진출판사. 1991.
30.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서울, 지산출판사. 1996.
31.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32.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서울, 지산출판사. 1997.
33.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34. 大韓傳統韓醫學會編.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서울, 지산출판사. 1998.
35. 大韓形象醫學會編. 芝山形象醫案. 서울, 지산출판사. 2003.
36. 허봉희. 東醫寶鑑의 방제인용과정에서 나타난 오기연구, 대한원전학회지 Vol14, No1, 2001.
37. 梁榮坡.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影響에 대한 研究(東醫寶鑑 속에 인용된 내용을 중심으로). 慶熙大學校大學院. 1998.
38. 김혜경. 갱년기증후군의 형상의학적치료. 대한형상의학회지 vol. 4-1, 2003.